

김수범 “중3 때 야구하다 쌍코피 ... 야구공이 무서워” 안치홍 “내 슛은 발과 공 따로 놀아 골키퍼도 못막아”

그라운드외 봄 ... 광주 FC 김수범·KIA 타이거즈 안치홍의 '맛있는 밤상 토크'



김수범

(수비수 90. 10. 02) 177cm 66kg
부산부민초-덕천중-과천고-상지대
2011년 신생팀 우선지명
38경기 4도움

구를 잡았죠, 부산이 고향인데 야구 인기도 많고 지역에 야구팀들이 많아서 학교 다닐 때 야구부 애들하고 놀기도 하고 야구도 즐겨봐요.”
야구에 소질이 없다는 김수범과 달리 안치홍은 축구 얘기가 나오자 “축구하면 애이세요, 제일 앞에 서요”라며 자신감 있는 표정이다.
하지만 “내가 차고 싶은 대로 차는데 공이 이상하게 가요. 발은 이리로 가는데 공은 저기로 가서 골키퍼가 막지를 못해요”라며 ‘코발 플레이’를 고백하자 김수범의 웃음이 터진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눈도 못 마주쳤다. 수줍게 앉아 그저 멍하니 미소만 날리고 있었다. 어렵게 놀임말로 인사를 나뉘던 두 사람, 운동선수에게는 역시 밥심인가? 불관위의 고기가 익어가면서 두 선수의 대화도 무르익는다. 고기굽는 손질이 잠잠해질 때쯤 대화를 나누는 이들의 입은 오히려 바빠졌다. 시원한 냉면 국물을 들이키며 하는 거침없는 대화, 둘은 어느새 친구가 되어있었다.

◇책 읽는 김수범, 공부하는 안치홍
지난 겨울 김수범은 책을 싸들고 전지훈련을 떠났다. 독서가 취미인 김수범은 요즘 박경철의 ‘자기혁명’을 읽고 있다. 페이지가 많아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는 푸념을 하면서,
서울고를 졸업하고 프로로 직행한 안치홍은 2011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글로벌리더 최고위과정을 수료했다. 배움에 대한 욕망 때문에 바쁜 시간을 쪼개 학생이 됐다.

강한 승부욕과 함께 발전에 대한 욕심, 공부하는 운동선수가 이들의 인생 목표이기도 하다. 호기심 많고 알고 싶은 것 많은 두 사람 자연히 질문도 많다.
“공 치면 진짜 높게 뜨는 것 있잖아? 그것 잡는 것 보면 신기해.”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 감이 생겨,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공이 포물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회전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돌다가 떨어지는 궤적이 있어, 사실 그런 공 잡는 게 제일 쉬워.”
“사인도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4~5개 정도가 있는데 이닝마다 바뀌기도 하고 가짜 사인도 있기도 하고, 사인 잘못 위우는 사람들도 있어.”
안치홍의 친절한 사인 시범이 이어진다. 안치홍의 친절한 사인 시범이 이어진다.

안치홍의 친절한 사인 시범이 이어진다. 안치홍의 친절한 사인 시범이 이어진다.



올 시즌 광주 FC와 KIA 타이거즈의 수비 키를 쥐고 있는 김수범(왼쪽)과 안치홍이 지난 11일 함께 고기를 구우며 ‘밥상 토크’를 벌였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김수범

훈련 틈틈이 책읽는 독서광
광주 강등되던 날 눈물 울컥
타구단 이적 유혹 있었지만
나를 인정해준 광주가 좋아

이 발끝과 발등 이렇게 이렇게 차면 공 움직임이 다르다며 ‘킥 강’을 한다.
“도투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빠르던데, 빠른 사람들 많지?”

안치홍

최연소 미스터 올스타 뽑혀
지난해 실책 많아 힘들었지만
야구를 다시 사랑하게 됐어
올해는 부상없이 활짝 웃자

“어 빠른 사람들 많은데 도투는 발만 빠르다고 잘하는 게 아니야. 느려도 센스 있는 선수들은 도투 잘해. 러닝 진짜 많이 뛰지?”
“축구는 제일 기본이 뛰는 것이니까, 작년

안치홍

(내야수 90. 07. 02) 178cm 88kg
구리 구지초-대치중-서울고
2009 2차 1라운드 1순위
132경기 0.288 64타점 20도루

에 뛰는 양 측정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형이 있었는데 하루에 적게 뛸 때는 9km, 많이 뛸 때는 13km를 뛰었어.”
“우리는 투수들이 러닝을 많이 해, 13초에 100m 뛰고 들어오기 이런 것 하던데.”
“어! 그거 우리도 하는 훈련인데. 근데 야구에는 살린 사람들도 있잖아. 몸이 큰 사람들은 어떻게 해?”
“뛰어야지.”
잠시 웃던 두 선수 몸매 얘기를 한다.
“예전에 공장에서 한화 선수를 본 적이 있는데 어깨들도 좋고 몸들이 어머머해서 놀랐어.”
“야구 선수들은 정말 같은 것 있으면 되게 맵시가 안나. 우리는 자유롭게 먹는 편인데 축구는 관리 많이 하지?”
“응.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니까. 시즌 중에는 정말 규칙적으로 먹는 것도 절제하면서 살다가 끝나고 휴가 들어가면 망나니들이 돼(웃음).남들은 먹는 것 때문에 고민인데 나는 살이 안 찌서 고민이야. 키는 원래 진짜 작았어, 고등학교 때 167cm이었는데 177cm까지 컸어. 지금도 키가 조금씩 크고 있어.”
“나는 고등학교 들어갈 때 175cm이어서 180cm까지 클 줄 알았는데 지금 아무리 뛰어도 177.5cm밖에 안 나와.”
훈련, 연봉체계와 FA(자유계약), 선수구상, 라커룸 모습 등 이들의 질문과 대답은 계속됐다.

◇그라운드외의 주연을 꿈꾸는 김수범, 야구외의 뜨거운 열애를 그리는 안치홍
김수범은 상지대 2학년을 마치고 프로에 뛰어들 3년차. 아마 선수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프로무대에 입성해 한국을 대표하는 공격수들과 정면 승부를 펼쳤다. 지난해에는 38경기에 나와 광주에서 가장 많은 시간 그라운드를 누볐다. 하지만 조명을 늘 공격수들에게 향했다.
“사실 섭섭하기도 하다. 모든 기록과 주목은 공격수들의 몫이다. 그래도 그냥 수비수라는 것에 끌렸다. 공을 뺏어내고 골과 승리를 돕는데 희열을 느낀다. 잘 지켜냈는데 공격수들이 골을 넣어주면 행복하다.”
광주는 김수범에게 축구 인생 최고의 순간을 선물해줬지만 아픔의 이름이기도 하다. 강등이 확정되던 날 라커룸에서 누구보다 서럽게 눈물을 흘렸던 김수범이다.
“계속 슬펐다. 1부도 끝이고, 강등이 됐기 때문에 선배들도 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했

다. 좋았던 기억이 많은데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컸다. 다 열심히 했는데.”
이적의 유혹도 있었지만 김수범은 끝내 광주를 다시 선택했다.
“나를 필요로 해주시고 인정해주셨다. 감사한 일이다. 올해는 골을 넣는데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 내 역할 잘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싶다.”
프로야구 최연소 미스터 올스타, 최연소 한국시리즈 홈런, 2루수 골든 글러브, 올해로 5번째 시즌을 앞두고 있는 안치홍의 앞에 붙는 수식어다.
2009년 신인답지 않은 수비와 한방으로 KIA의 V10을 이끌며 팀을 대표하는 선수로 우뚝 섰지만 지난해 안치홍은 야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그라운드에서 멀어졌다. 0.288의 타율과 64타점 20도루라는 괜찮은 기록을 남겼지만 개막과 함께 시작된 수비 실수로 무던히도 애를 태웠다.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답답하고 힘들었다. 늘 야구를 하는 게 재미있고 설렘인데 빨리 끝나고 집에 갔으면 하는 생각이 했었다.”
욕심 많은 안치홍은 마무리키퍼에서부터 혹독하게 수비훈련을 했다. 가을 그리고 겨울까지 이어진 훈련을 통해 안치홍은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 자신감을 되찾은 게 가장 큰 소득이다.
“어느 정도 자신감을 되찾았다. 지난해 힘들기도 하고 시련도 있었는데 그래서 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야구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고, 다시 사랑하게 된 것 같다.”
질치부심 겨울을 나며 2013시즌 봄을 기다린 광주와 KIA 수비의 중심.
지난해의 아쉬움을 털어내고 도약의 한해 를 꿈꾸고 있는 김수범과 안치홍은 “부상 없이 올해는 활짝 웃어보자”는 다짐으로 유쾌한 만남을 펼쳤다.

안치홍의 친절한 사인 시범이 이어진다. 안치홍의 친절한 사인 시범이 이어진다.

광주 출발 왕복 셔틀 운행 안내

광주 - 완도 - 제주항 - 완도 - 광주

셔틀버스출발 : 06:00 광천 터미널 내
셔틀버스도착 : 완도 버스터미널까지만 운행 됨
패 속 선 : 완도 출발 09:00~10:40
제주 출발 17:50~19:30
소 요 시 간 : 1시간 40분
패속선+셔틀버스요금
편도 37,000원(한만세포함요금, 추가요금 없음)
체크 : 탄계는문의후확정, 완-제, 제-완편도는문의바람

광주 - 목포 - 제주항 - 목포 - 광주

셔틀버스출발 : 06:40분 광천동 터미널 건너편 e-편한세상 앞
셔틀버스도착 : 목포 국제항 여객선 터미널 앞
패 속 선 : 목포 출발 09:00~13:20
제주 출발 17:00~21:20
소 요 시 간 : 4시간 20분
크루즈+셔틀버스요금
편도 30,000원(한만세포함요금, 추가요금 없음)
체크 : 탄계 불가, 합인율 및 합인 대상자들 문의바람

첫날부터 짝~찬 신나는 제주 여행
광주 출도착 제주도 2박 3일 매일 출발

완도 쾌속선 169,000원~
목포 크루즈 155,000원~

- 1일자 도두봉 트래킹, 수목원테마파크-트리아트, 얼음박물관, 5D영상관
- 2일자 오설록, 코끼리랜드, 카멜리아힐 동백정원, 석부자테마파크, 올레7코스, 새연교+새섬, 쇠소깍
- 3일자 교래리 삼나무숲길, 조랑말 승마체험, 제주 허브동산, 에코랜드 또는 선녀와 나무꾼, 해녀촌, 친환경농수산물매장

포함 사항:광주-완도, 목포 왕복셔틀버스(신선초순왕복선)택시, TAXI 일정내에 모든 관광지 식사완도-중식3회조식2회/목포-중식2회조식2회
숙소입장료 5~6인실)
불포함사항:기타드림(1인 10,000원)자유식당완도터미널-완도항 승송
현지 직불관광: 산방산 유람선(17,500원)공룡리안방사승 등(15,000원) 추가비용:금요일출발 2만원 토요일출발1만원2인실1인실3만원